

외신 동향

□ A happy new year [Economist 15.1.3]

-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는 '15년에도 이어질 것이며,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민층에도 이익이 확산되는 모습
 - '14년 3분기 GDP 성장을 확정치는 +5.0%(전기대비, 연율로 수정치 대비 큰 폭 상향)
 - * 이는 '03년 이후 최고치이며, '14년 2분기(4.6%) 이후 연속 +4.0%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며 올해 전망치는 +3.0% 수준
 - 내수경기 호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노동시장의 양적·질적 개선
 - 비농가 취업률은 90년대 이래 '14년 가장 높았고, 실업률 또한 5.8%까지 하락
 - * '14.11월 한 달 간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321,000개로 '13년 월평균(194,000개) 대비 약 1.5배 이상 증가
 - 그동안 정체되었던 임금소득도 상승세를 보이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을 반증
 - * 지난 11개월 간 중위 가계소득의 실질 임금 +1.2% 증가
 -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+2.0%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('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+1.3%)
 - 원유가격 급락은 낮은 물가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짐에 따라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가능해졌고, 이는 자산가격의 고공 행진을 견인
 - * 지난 12월 23일 다우존스지수는 18,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
- 로런스 서머스(前 美재무부장관), 에릭 로젠그렌(보스턴연준 총재) 등은 미국의 경기 회복론에 대해 신중한 모습
 - 금리인상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후 인플레이션, 임금 증가세 등의 경기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함